

일본 요코하마(横浜)市の 도시농업

편집실

1. 요코하마(横浜)市 도시농업의 진흥

요코하마시 면적의 약 8%를 점유하고 있는 농지는,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의 장으로서만이 아니고 토양, 물, 푸르름 등의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레크리에이션과 교육, 복지의 장으로서 시민생활을 풍요롭게하는 등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녹색의 오픈 스페이스이다.

도시농업의 진흥정책으로는 「요코하마브랜드 농산물」의 육성과 안정공급을 추진하고 인정농업자나 후계자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농업의 거점이 되는 일정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전용지구」나 「농업진흥지역, 농용지구역」의 지정하여 정비와 농지개량과 함께, 메구미오사토(恵みの里)의 정비, 요코하마 후루사토무라(横浜ふるさと村)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메구미사토의 정비, “시민이용형 농원축진특구”를 활용한 특구농원 등 시민이용형농원 설치와 시민농업대학강좌 등으로 시민과 농업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① 横浜브랜드농산물의 육성증산

요코하마산 농산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요코하마산농산물을 생산진흥품목으로 인증(30품목)하여, 생산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대책으로서 시내산 농산물을 홍보(안테나숍, 청공시, 요리대회, 직판지도, 포스트 및 전단지 등)하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② 横浜브랜드농산물의 출하촉진

시내산 채소를 시내 시장에 안정적인 출하를 도모하고 심벌마크의 부착촉진을 위해 마크가 있는 박스 등 출하자재에 대해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③ 환경보전형농업 추진

화학비료 및 화학합성농약에 의존하는 재배를 재편하여 환경에 좋은 농업을 추진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안전공급하는 재배방법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업국의 그린콘포스트사업과 연대하여 유기질자원의 유효활용에 의한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보전형농업추진자 인증 : 환경에 부담이 적은 농업을 하고 있는 그룹이나 농업인을 환경보전형농업추진자로 인증하여 재배기술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 그린콘포스트 이용촉진사업 : 농지의 지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또는 유효한 자원 리사이클을 위해 시내에서 발생하는 과수 전정목을 퇴비화한 그린콘포스트의 이용을 촉진한다.

④ 농업경영의 안정

- 채소생산가격안정대책사업 : 공동출하 및 공동 판매된 채소의 도매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그 손실의 일정범위까지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정부·현·생산자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 녹화용 수목의 생산 및 배부
 - 묘목육성재배 및 배부사업 : 시내의 녹화추진에 필요한 일정규모의 묘목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의 일환으로서 농업 전용지구를 중심으로 녹화용 묘목(연간 2만~4만본)을 생산 위탁하여 공동녹화 등에 계획적인 배부를 실시하고 있음.
 - 원예진흥대책사업 : 시내에서 생산된 꽃을 사용한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원예산업을 진흥.
- 육돈생산가격안정대책사업 : 시내산육돈의 생산가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양돈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축산물의 안정 공급을 추진한다.
- 축산지도사업 : 축산경영의 안정과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 우량후계우 확보, 소 수정란이식기술의 향상, 가축방역대책, 축산물의 소비확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 원예지도사업 : 농업생산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 농업기술지도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재배방법 등을 알기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⑤ 인정농업인 육성

- 인정농업인 경영개선 지원 : 농업경영지반강화 촉진법을 근거로 인정농업인제도에 의해 경영감각이 우수한 효율적 또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인정농업인(현재 120명)”에 대해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요코하마·꿈·파머 : 농업경영, 지역활동 등에 적극적인 여성농업인을 “요코하마·꿈·파머”로 인정하여, 더 많은 교류와 각종 협회, 심의회에 참여시키는 등, “농”이 있는 거리의 남녀공동 참가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간 농업인 육성 : 농업후계자 확보와 육성, 농업경영자, 여성농업인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의 농업취로지원 : 장애인(지적장애인)의 농업분야에서의 취로를 지원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농가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⑥ 농업금융

지역에 적합한 농업시설의 정비확충, 시설의 근대화 등에 의해 농업경영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융자조성사업등을 실시하고 도시농업을 진흥하고 있다.

⑦ 농업공제

수도작, 가축, 원예시설, 과수에 대해서 재해에 의한 농업인의 손실을 보조하는 농업공제사업은, 1992년 현의 공제사업을 통합하여 설립된 카나가와(神奈川)현 농업공제조합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2. 농지와 후루사토와 경관보전

① 농업전용지구의 지정

도시농업을 진흥하여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에 일정면적의 농지를 요코하마시 단독정책인 「농업전용지구」를 지정(26지구, 1,011ha)하여 생산기반의 정비, 농가조직육성등의 진흥정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지정요건

-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 농지 및 농지이용이나 보전에 필요한 주변의 토지를 포함하여 약 10ha 이상의 면적
-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지역

② 농지 개량사업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개량사업으로 포장, 농도, 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농도정비사업, 밭관수시설, 포장정비사업, 농도포장사업 등

③ 가네자와(金澤)지구 임해부농원정비사업(면적 16.6ha)

1991년부터 정부, 현, 시비를 투입하여 포장이나 농도, 관수시설 등 토지기반정비와 시민농원이나 감자 캐기, 밀감농장 등의 관광농원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와 조화를 이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이 농업과의 만남의 장을 정비하고 있다.

④ 미나토후쿠(港北)뉴타운지역의 농업진흥

미나토후쿠(港北)뉴타운사업의 일환으로서 1969년부터 「농업전용지구」로서 농지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포장정비, 관수시설, 농도정비 등 종합적인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미나토후쿠(港北)뉴타운지역의 약 10%, 약 230ha가 농업전용지구로 정비되었다.

⑤ 메구미노사토(恵みの里)

메구미노사토(恵みの里)는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농업경영만이 아니고, 다양한 타입의 시민이용형 농원(관광농원, 시민농원 등)에서 농업체험이나 “농”의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

공하는 새로운 농업경영을 전개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개발을 통하여 농지보전과 불경작지의 활용, 주변녹지의 환경, 경관보전과 함께 종합적인 농업진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타나(田奈)지구(아오바(青葉)구, 미도리(緑)구) 및 투수우카(都岡)지구에서는, 지역관계자에 의한 사업추진조직을 주체로 하여,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직매소, 농업교실, 농산가공교실이나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미도리(緑)지구에서는 지구지정을 위해 지역관계자와 정비와 함께 농업체험과 직판, 경관형성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⑥ 요코하마후루사토무라(横浜ふるさと村)

양호한 전원경관을 보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업구역의 경관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코하마후루사토무라(横浜ふるさと村)로 지정하여 생산기반정비나 연수시설등의 설치, 수립의 보전과 활용등 시민이 자연과 농업에 친밀한 장으로서 정비하고 있다.

○ 지게후루사토무라(寺家ふるさと村)(아오바(青葉)구) 면적 86.1ha

- 시설내용 : 종합안내소(사계의 집), 체험온실, 운동광장, 과수원, 향토문화관, 도예원, 낚시저수지, 삼림 11.7ha 등

○ 마이오까후루사토무라(舞岡ふるさと村) (토츠까(戸塚)구) 면적 102.6ha

- 시설내용 : 종합안내소(무지개의 집), 농산물판매소, 체험온실, 집출하저장시설, 농축산물가공시설, 만남의 광장, 산책로, 휴게실, 삼림 15.3ha 등

⑦ 생산녹지

시에서는 1991년 생산녹지법의 개정으로 시가화 구역(市街化 区域)내의 농지를 계획적으로 보전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1992년부터 생산녹지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1993년 이후에도 매년 추가지정을 하고 있으며, 시가화구역내에 있는 500㎡이상 농지에 생산녹지법 및 시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매년 추가지정을 하고 있다. 2004년 현재 1,981지구로 총면적은 348.9ha이다.

⑧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현에서 작성한 기본방침에 따라, 1972년 4,596ha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었다. 그 후 12회의 구역변경으로 2004년 3월 현재 농업진흥지역면적은 4,926ha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진흥지역 중,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농지를 농용지구역으로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다. 농용지구역은 1,066ha이다.

⑨ 농지의 유동화와 유효활용

“농지의 유동화”라는 것은, 영농의욕이 높은 농업인이 농지를 빌리거나 쉽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용지이용집적계획으로 농지의 임차, 매매를 촉진하고 있다.

3. 시민과 농(農)과의 만남

① 시민이용형 농원

○ 시민채소원(사업개시 1976년) : 가족모두가 채소재배를 하면서, 레크리에이션과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도심 속 지역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가 농지소유자에게 빌려 개설하여 왔다. 2004년 사업 종료.

- 14개소, 2.8ha 1구역(15㎡)/년간 3천엔

○ 재배·수확체험팜(사업개시 1993년) : 농가가 농업경영의 일환으로서 개설한 시민농원으로 농지와 종자나 묘목은 개설한 농가가 준

비한다. 이용자는 농가의 재배지도로 본격적인 채소재배, 농작업 체험을 할 수 있다.

- 70개소, 10.1ha 1구역(30㎡)/년간 16천엔 ~35천엔

○ 시민농원(사업개시 1998년) :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에 500구역을 가진 대규모 농원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채소, 꽃 등을 재배하고 휴과 친해지며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요코하마농협이 소유자에게 농지를 빌려 개설하고 있다.

- 2.5ha(총면적), 488구획 ㎡/1천엔

○ 시민경작원(사업개시 2000년) : 분양받은 구역에서 자유롭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농원으로, 농가로부터 재배지도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이 소유자에게 농지를 빌려 개설하였다.

- 10.1ha, 30㎡/구역/24천엔~25천엔

○ 건강농원(사업개시 2003년) : 시민채소원을 대신하는 농원으로, 채소나 꽃의 재배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원이용자의 자주적인 지역커뮤니티의 양성을 목적으로 농원을 개설하고 있다.

- 1.75ha, 7개소, 238구획 30㎡/1구역/10천엔~20천엔

○ 특구농원(사업개시 2003년) : 구조개혁 특별구역법을 기본으로 시의 “시민이용형 농원촉진특구”에 의해 농지소유자나 소유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에 의해 특구농원의 개설을 촉진한다.

- 3.36ha, 22개소, 936구획

② 어린이 식물원

어린이 식물원은 1979년 국제아동의 해를 기념하여 개설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식물과 접하고 자연에 친근감을 느끼면서 식물의 지식을 높여 농지를 지키고 육성해야 한다는 마음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녹화의 보급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부지 약30,000m²

③ 농정홍보활동

요코하마의 농업실태, 농가의 생활등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농가와의 교류를 높이기 위해 계간 홍보지를 발행하고 있음. 그리고 시의 농업정책과 함께 농업지역이나 농산물 등을 소개하는 농정판넬전을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음.

④ 방재협력농지

방재협력농지등록제도는 대지진 등의 발생시에 피난 공간, 가설주택건설용지, 복구용자재부지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등록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복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도시의 방재공간으로서 농지의 역할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지의 보전, 도시농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995년에 발생한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구적인 제도를 개설한 것으로 1996년부터 시작하였다.

- 등록면적 280.4ha

4. “농”을 지원하는 인재양성

① 시민농업대학 강좌 개최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민농업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코스를 설정하여 실천코스(2년제)와 만남코스(1년제)를 설치하여 강좌내용을 충실히 하고 있다. 강사인 농가를 농업 체험 어드바이저로 하고 실천코스 수료생을 농

업체험 리더로 인정하여 시민농원 등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농체험어드바이저, 농체험리더

시민과 농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농업대학 강좌나 각종 농체험 연수회의 강사 등으로 활약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체험 어드바이저로, 시민농업대학 강좌 실천코스를 수료한 학생에게는 농작업의 보조나 시민농원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을 농체험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

- 농체험 어드바이저 : 시내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80명이 있음

- 농체험 리더 :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478명이 있음

③ 요코하마 농(農)과 녹(綠)의 회의

2002년 3월 시민농업대학 강좌 수료생인 “농체험 리더”들의 자주활동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요코하마의 농업과 녹지의 응원단을 목표로 하여 정보교환, 농가지원, 농지보전, 녹화사업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 2004년현재 178명^㉔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日本横浜市役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